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30호)

매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10

미션
MISSION

사랑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갑상선암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 국내 최초 갑상선암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1,000례 달성

우리병원 갑상선센터가 국내 최초로 갑상선암에 대한 고주파절제술(RFA) 1,000례를 달성했습니다. (양성결절 포함 비수술적 치료사례는 총 3,300례 이상) 이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갑상선암 치료 흐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방 중소병원(부산 해운대 위치)에서 국내 병원 최초로 1,000례를 달성했다는 것은 고객들이 우리병원 갑상선센터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신뢰와 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객 분들의 선택에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치료 여정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의료진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수고, 고객의 신뢰, 갑상선암 치료와 갑상선 관리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성과를 축하해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 가치있는 한걸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입직원교육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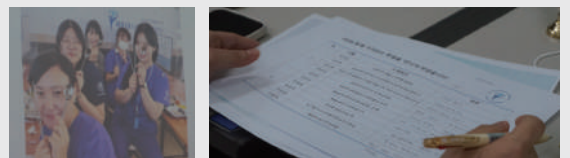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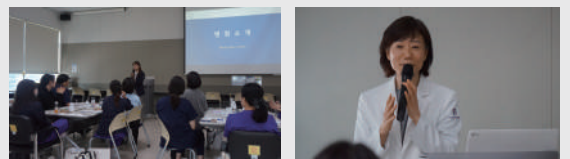
10/12(토)에는 9층 회의실에서 10명의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2개의 조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티타임을 시작으로, 아이스브레이킹(콜마이네임), 병원장님 인사말, 병원소개 시간(1.우리는 왜 이곳에서 함께하는가, 2.함께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3.우리는 어떻게 일하는가, 4.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은)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미션 수행 시상을 시작으로 장애인식개선, (사)나행동, 감염, 환자안전, 소방, 직장인에절교육 등 다양한 의료기관 필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나의 비전 시간을 통해 개인 비전을 수립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물 증정, 소감 나누기, 만족도 조사 등 소담소담 마무리를 하며 단체 사진 찍는 것을 끝으로 신입직원교육을 마쳤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걷는 길 위에서보다는
누군가가 정성스레 손에 쥐여 준 단서 하나라도 잡고 걷는 길 위에서
조금 더 용기 있고 조금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될 지 모릅니다.

신입직원교육을 통해
조금 더 용기 있고,
조금 덜 흔들리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계속 될 가치있는 걸음

신입직원 3기 수습수료식 (10.24 / 10.25)

3개월 수습기간동안 이전의 나, 성장한 나, 앞으로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3기 수습직원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기에는 총 15명의 신입직원 수습수료자가 참여하였고, 나의 성장과 더불어 함께 참여한 동료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해나행 가족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응원하였습니다.

‘함께 가치있는 한걸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웃음치료 프로그램 (10.05)

이번 시간에는 히든싱어 남진 편에서 우수상 영광에 빛나는 해운대 남진, 전찬영 강사님(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과 함께 첫 번째 토요일,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23명의 참여자, 보호자가 참여하였으며 함께 노래를 배우고 다 같이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치료는 '웃음'이란 즐거운 행동을 통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웃는 웃음이라도 재활치료처럼 매일 연습하다보면 재활치료의 지향상은 물론 신체와 정신, 앞으로의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본원 웃음치료 프로그램은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3시 30분, 9층 회의실에서 진행하오니 11월에도 참여하여 작은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슬기로운 재활생활 교육 프로그램 (10.16 / 10.23)



운동치료와 기구운동의 필요성 (재활치료 1팀 강봉학 부팀장)

슬기로운재활생활 2회차 세 번째 시간에는 재활치료 1팀 강봉학 부팀장님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총 44명 참석하였으며 본원 물리치료 소개를 시작으로, 재활치료의 필요성, 운동기구에 대한 설명과 치료 효과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재활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운동치료에 접목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활과정에서 꼭 필요한 작업치료 (재활치료 2팀 백영수 팀장)

네 번째 시간에는 재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작업치료라는 주제로 재활치료 2팀 백영수 팀장님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총 29명이 참여하였으며 재활치료 2팀 소개, 작업치료 개념 및 목적은 물론, 백영수 팀장님만의 재활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를 통해 재활 과정에서 참여자의 자발성, 적극성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시간에는 활발한 피드백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척수이야기 (10.07)

척수이야기 프로그램에 신규 참여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방향 그리고 일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서로간의 라포형성을 위해 닉네임이나 본명으로 네임카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바쁜 일상을 되돌아보며 참여자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하고 싶은 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밖으로한걸음씩 (10.10)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의 제약이 있는 척수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이동의 편리와 자립능력 향상 등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보조기구입니다.

입원참여자 김○○님께서도 활동용 휠체어 구매를 위해 재할코치님과 함께 휠체어 전문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휠체어 구매 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의 선택을 위해 무게 및 소재와 색상 등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양에 따라 가격의 폭도 큰 편이며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번 선택하시면 10년 정도는 사용하는 보조기구라고 하니 신중히 잘 선택하셔서 일상생활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휠체어스쿨 (10.14)

휠체어스쿨에 신규참여자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휠체어 조작의 필요성과 내 몸에 맞는 휠체어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와 함께 휠체어 밀 때 효율적으로 밀는 방법과 회전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콘을 좁게 넓게 두고 회전하면서 회전방법을 적용하였고 휠체어를 밀 때 손의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자세에 익숙하여 바로 고쳐지지 않겠지만 복습을 통해 올바른 자세로 휠체어를 타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10.11)

매달 한번씩 다가오는 행사인 6층 일상재활센터에서 주관하는 낮병동 월간 우수 출석왕 시상식이 있습니다.

낮병동 참여자분들의 재활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이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이○○, 유○○님이 수상하였고, 자립왕에는 이○○, 김○○님이 수상하셨습니다.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든 참여자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14대, 15대 꿀꺽왕 시상식 (10.29)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여,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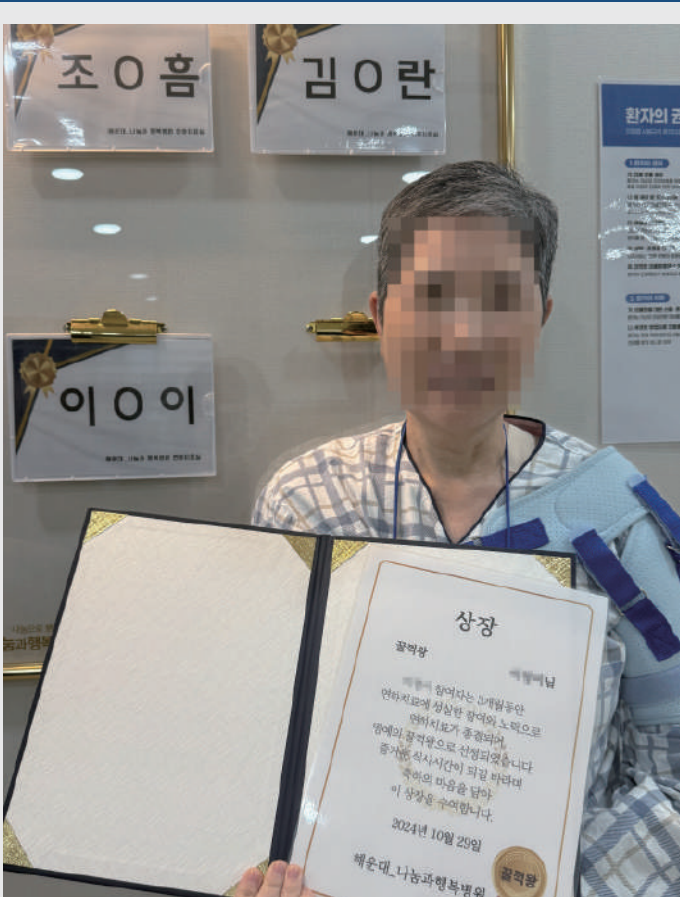
이번 제 14대 꿀꺽왕은 이○이님, 제 15대 꿀꺽왕은 서○희님이 선정되어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식사 준비중이시던 서○희님이 치료사 선생님들을 보고 환한 미소로 환영해주시며 시상과 더불어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키지 못하던 저를 치료사 선생님들이 잘 삼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울먹이시던 참여자분을 보며 TFT를 준비한 치료사로서 의미있고 행복함을 많이 느끼게 된 하루였습니다.

서○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라고합니다. 앞으로 먹는 즐거움을 알아갈 참여자분을 만나신다면, 많은 응원과 축하부탁드립니다.

이날 14대 꿀꺽왕 이○이님은 시상 진행하지 않았지만, 명패와 상장을 들고 찍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2024년 10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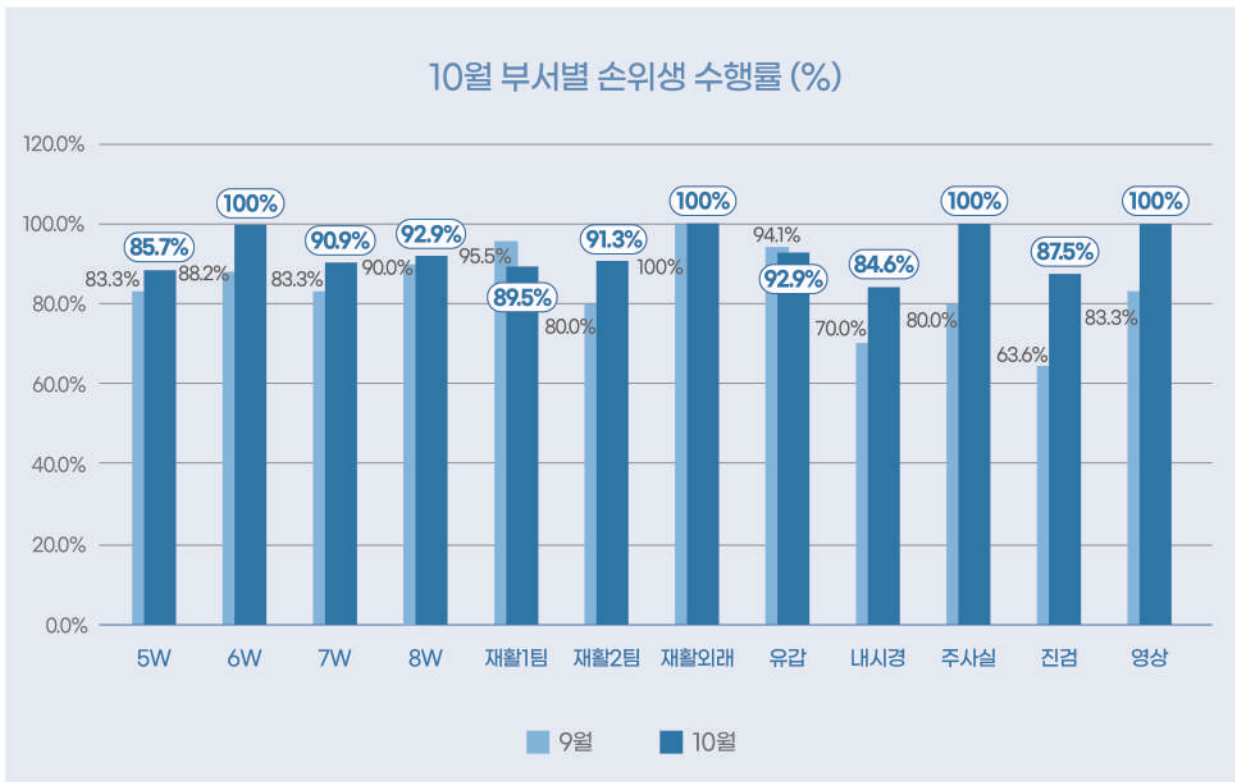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10월 01일 ~ 2024년 10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4년 9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48	136	91.9%	+6.5%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퇴원 계획으로 준비된 퇴원을 실행하다.

참여자 이OO님(70대)은 경추손상 참여자로 타 재활병원에서 1년 6개월 입원 후 자택 퇴원을 준비하기 위해 본원에 오셨습니다. 참여자는 과거 외향적인 성향이였으며 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각종 모임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생활하였으나 발병 후 사지마비와 긴 입원 생활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에서는 사회사업 상담을 통해 사정 및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와 세 명의 딸이 있고 입원 중에는 첫째, 셋째 딸이 번갈아 가며 교대 간병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파킨슨 질병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참여자 돌봄이 어려운 상황으로 자택 복귀 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셋째 딸이 주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사정 결과, 참여자는 퇴원 욕구는 있으나 주거 환경 및 돌봄 자원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재활코치팀에 연계하여 참여자의 장애수용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퇴원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안내, 두 번째로 장애인보조기기급여제도 전동휠체어 급여승인 신청, 마지막으로 주거환경평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거환경평가, 자택 복귀 신호탄이 되다.

퇴원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담당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코치, 공사업체 대표님이 함께 이OO님 자택을 방문하여 주거환경개선 방향점을 잡았습니다.

참여자 자택은 아파트로 지하 주차장에서 실내로 바로 연결되어 이동이 편리했으며 거실은 전동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현관에 경사대 설치를 권유했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활용하여 필요시 화장실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안전손잡이의 경우 배우자께서 이용 예정이어서 거실 화장실에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단차로 인해 휠체어 진입과 내부에서 회전 가능한 충분한 각도가 나오지 않아 단차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닥 타일을 높이고 화장실 샤워부스를 제거하여 샤워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참여자가 머리를 감을 때 목을 뒤로 꺾어 동작을 수행하고 있어 앞 방향으로 숙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DL 수행을 위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평가를 각 담당자와 참여자, 보호자가 모여 진행함으로써 주거환경뿐 아니라 생활 속 작은 틈을 통해 자택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팀에서 중요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사회복지기를 완성하다.

주거환경개선이 완료되었고 이OO 참여자는 자택에서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 재활치료 시간에 전동휠체어 연습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급여제도 급여품목인 전동휠체어를 신청을 하였지만 사지마비로 지원 승인받지 못하였고 심사만으로 전동휠체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와 가족분은 전동휠체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구매를 결정하셨습니다.

자택 복귀 전 보호자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참여자의 전동휠체어 훈련을 위해 약 1주일 가량 (사)나행동 노운기념 전환홈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가 직접 간호처치(드레싱 등)를 하였고 이동을 위한 전동 리프트 사용을 연습하고 보호자 교육을 통해 자택에서 잘 생활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foley를 하고있는 상황으로 자택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와 간호 처치가 필요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1등급)을 활용하여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원 재활 외래 이용뿐 아니라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연계하여 방문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보건소 CBR 사업 중 방문재활치료와 본원 주 2회 외래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재활치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사업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층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성별	나이	보호유형	대상질환	발병일	입원기간
참여자 사항	대상	여성	70대	건강보험	척수손상	2022.06.	2024.02 ~ 2024.06
	가족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형태 : 3인 가구(부부자녀가구) ■ 주보호자 : 셋째 딸 					
	심리·사회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용의 어려움으로 우울감 보였지만 현재는 수용하는 단계 					
	경제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 수급 증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음 					
	주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형태 : 아파트(E/V O) ■ 주거환경 : 현관 및 화장실 단차, 사위부스로 인해 화장실 내 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문제사항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퇴원을 통한 안전한 자택 복귀 희망 ■ 지속적인 재활 및 간호치료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	사회복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경로 : 자택 ■ 치료계획 : 본원 재활 외래 ■ 이동수단 : 전동휠체어, 두리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 재활코치 ■ 본원 주거환경평가 ■ 연계 : (사)나행동 노운기념 전환홈 					
	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혜택 이용 ■ (사)나행동 전환홈 이용 ■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보건소 사업(방문간호, 방문재활)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2024 부산바다마라톤 참가 (10.27)



부산바다마라톤을 계기로 나행러닝크루 공식 출범 (10.27)



첫 러닝 이야기

- 크루원: 김완호, 정경란, 유혜진, 허영재, 김동현, 윤주만, 백영수
- 달림장소: 해운대-송정구간 해안데크
- 달림기록: 9km 5명, 5km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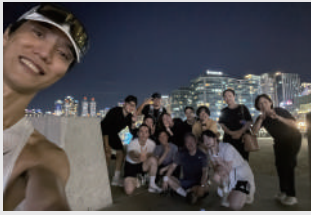
- 허영재님 처음으로 5km 달리기 성공!
- 정경란 파트장님 처음으로 8.84km 달리기 성공!
- 김완호원장님 9km 뛰시고 체력 조금 남는다는 말씀을...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임이 밝혀짐!!



나행러닝크루 두번째 이야기

- 크루원: 김완호, 정경란, 안현정, 김향현, 유혜진, 한혜지, 이현성, 허영재, 송영훈, 이강민, 정윤환, 여승준, 정혜인, 백영수
- 달림장소: 해운대-송정구간 해안데크
- 달림기록: 10km 6명, 6km 4명, 3km 4명

- 한혜지, 김향현 '나행크루는 빠른 걸기로도 활동을 한다'를 몸소 보여주!!
- 이강민 숨은 넘어가는데 괜찮다를 부르짖는 용기의 화신!
- 정경란. "같이 뛰어요!!" 에 "싫어요"로 나 잡아아바라를 실현!!



나행러닝크루 세번째 이야기

- 크루원: 백선미, 김완호, 박선영, 김경희, 김경애, 박희진, 배연정, 정경란, 심준영, 한혜지, 정윤환, 김동현, 정혜인, 백영수
- 달림장소: 해운대-동백섬-마린시티
- 달림기록: 10km 5명, 5km 3명, 4km 6명

- 백선미 병원장님 안오신다 안오신다.. 진짜 안오시나보다... 오셨다!!!! ^^
- 김완호원장님 러닝타령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새 장리를 개척하심
- 박선영팀장님 옷은 MZ.. 운동은 세시봉!! ^^
- 정혜인님 동백섬에서 길을 잃다.. 그 이던가를 헤메이는 자유영혼이 되었다 복귀함



나행러닝크루 네번째 이야기

- 크루원: 백선미, 김완호, 김향현, 정경란, 유혜진, 심준영, 한혜지, 허영재, 이현성, 정윤환, 김동현, 윤주만, 정혜인, 박하영, 백영수
- 달림장소: 해운대-동백섬-마린시티
- 달림기록: 3km TT 도전 8명, 4.5km 4명, 3km 워킹 3명

- 박하영님 7km 평때 4분 57초 라는 기대주.. 근데 왜 애가 오질 않지?? 어디냐~ 하영아!
- 김완호원장님 탐나고 뭐가 먹는거 음... 맥주만모금 후 "와~!"..
- 이현성님 마라톤 신청은 왜 안했니.. 그 실력을 보여주는데가 없네~^^
- 주만, 영재님 병원장님 페이스를 끌어드려야하는데.. 끌려간 건 아니지??



나행러닝크루 다섯번째 이야기

- 크루원: 백선미, 김완호, 신수영, 박선영, 이유희, 이연향, 김중태, 김향현, 안현정, 문서진, 정경란, 유혜진, 김선미, 조준호, 송지혜, 심준영, 한혜지, 이현성, 여승준, 정윤환, 김동현, 윤주만, 정혜인, 박성현, 박선미, 백영수
- 달림장소: 해운대-청사포-송정데크길
- 달림기록: 10km 8명, 5km 15명, 3km 워킹 3명

- 백선미원장님 1km 말씀없음 2km 괜찮네요 3km 필만하네요 4km 불나방처럼 저멀리 빛속으로 질주를 해버리셨다... 그녀는 5km를 가장한 10km 선수였다.
- 김완호원장님 10km를 1시간안에 뛰었는데 기록이 사라졌어~~ (모두의 아우성) 그..러..나.. '내가 김완호다' 10km 58분 주파 성공!!!! ^^
- 김중태부팀장 러닝후 허어진 시점, 손에 자연도 소금빵을 사들고 나타나다. 나뉘면자는 의미인가 생각할 철나~ 뭐라도 아내한테 사들고 가야지. (속마음: 오 멋지다! 근데 여기 사람 많은데.. 음~~ 우리는 안주는구나TT 배고프당)
- 김선미님. 완주목적 어머세요? 란 질문에 0.2초 머뭇.. "상쾌합니다!!"
- 주만님 5km 페이스 계속 하다가.. 제가 10km 완주를 못할 것 같아요. ^^ (최선을 다해주는 화생정신..미안해 주만이 담내 심장이 뛰어나올만큼 뛰게해줄께!!)



나행러닝크루 여섯번째 이야기

- 크루원: 김완호, 박선영, 김중태, 김경애, 박희진, 장정임, 정경란, 유혜진, 조준호, 조재현, 한혜지, 허영재, 정윤환, 김동현, 윤주만, 백영수
- 달림장소: 해운대-동백섬-달맞이재 -청사포-해운대
- 달림기록: 10km 언덕길 5명, 8km 3명, 5km 4명, 3km 워킹 4명

- 김완호원장님 언덕길이 돌고돌아 청사포해안데크길에 들어서자마자.... "이 길이 이렇게 편한 길이었어?" ㅋㅋ. (오늘 정말 힘든 코스였는데 완주하시다니 대단단!! 내일 주사맛고 계신거 아니죠!??)
- 정경란파트장님 달맞이 언덕길을 죽을 힘을 다해 올라오유했.. "너무 힘드려~~ 굴러내려가고 싶어요." (오늘 최고로 고생한 그녀!)
- 장정임파트장님 5km 완주하고 뛴셨나요!? 문자.. 뛰니까 또 뛰어주세요. ^^ (모자 이 익숙함은.. 또 한 명의 재능러 빌경)
- 박선영팀장님 '그녀는 유령! ^^' 분명히 오는 모임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굴을 못본사람이 가득~~ 그런데 분명히 워킹조에 참여했다!! (얼굴 본 사람 있으면 손!!)



나행러닝크루 일곱번째 이야기

- 크루원: 김완호, 장정임, 정경란, 유혜진, 조준호, 김선미, 한혜지, 허영재, 정윤환, 김동현, 윤주만, 백영수
- 달림장소: 해운대-송정 해안데크길
- 달림기록: 10km 8명, 8km 3명, 5km 4명

- 모래폭풍님 등장! 준비운동을 하면 몸이 풀려야하는데 왜 온 몸에 침을 맞는 느낌인걸까~ 10초에 한번씩 들려오는 "앗 따가"
- 허영재선생님 예상치못하게 빠르게 골인지점에 등장! 그리고 대자로 바닥에 뺏는다. 그리고 계속되는 무용담.. (알고보니 9km만 뛰었다. 근데 왜 풀코스 원사님 같지!?! ^^)
- 한혜지선생님 처음엔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참여를 주저했어. 그런데 이젠 이 시간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오늘 5km를 1시간내 주파했다...WOW)
- 조준호선생님 김원장님이 어찌 뛰고 오늘 또 뛰는거라 하자.. "전 오늘 아침에 10km 뛰었어요." (음.. 찾았다! 내년 봄 하프데리고 땀 뻘뻘!! 으하하!! 준호생 내가 내년에 1시간 50분안에 하프들어오게 해줄게요~^^)
- 김동현선생님 오늘 준비운동때 없었다. 그런데 주로서서 나타났다. 함께하고자 뛰어서 달려서 따라왔다. (그 마음에 힘이 되네요~^^)



나행러닝크루 여덟번째 이야기

- 크루원: 백선미, 김완호, 장정임, 정경란, 김향현, 유혜진, 김선미, 심준영, 허영재, 정윤환, 김동현, 윤주만, 정혜인, 백영수
- 달림장소: 해운대-송정 해안데크길
- 달림기록: 5km 8명, 3.5km 4명, 2.5km 2명

- Skip master의 등장!! 정자세 스킵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시전한 후"스킵 원래 이렇게 그냥 하는거잖아~~" (우리가 알던 그 탈출 시전하시던 그 분은 어디에?? 신분 절대 보호..)
- 허영재선생님 "지난주 9km 뛰어보니 뭐 마라톤 벌거 아니던데요.." (ㅋㅋ 대자로 뺏은 그 친구는 또 어디에??)
- 장정임파트장님 "마라톤은 힘을 아꼈다 마지막에 모두를 제치고 들어오는 쾌감이 짜릿해요" 란 말에 "그렇게 같아요. 오토바이로도 그렇게 다 제치고 갈 때 정말 짜릿해요." (소식적 모터 좀 모셨던 그녀.. 후 후00?)
- 오늘 두번 강등!! 첫번째: 분식집에서 오늘 내가 쏘겜!! 두번째: 러닝의 매력에 빠질 것 같네요!
- 역시 이성과 감성을 넘나들며 감동의 화살을 쏘는 그녀는?? 여육시 병원장님!! ^^
- 8번의 러닝모임을 진행하며 운동후에 힘들보다 행복함, 뿌듯함, 연결됨을 느끼며 웃는 우리의 모습으로 달려져감을 보게된 것이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온 듯 합니다. ^^
-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D-3 부산바다마라톤! 모두 바다 한가운데 광안대교를 내 두발로 걷고 뛴다는 설레임,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나행인이 있다는 따스함을 가득 안고 그곳에서 즐거움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



이벤트 프로그램

포레스트 침대 스프레이 & 촉촉 립밤 만들기 (10.24)



이번 달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촉촉한 립밤과 살균 효과가 있는 침대 스프레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초성 맞추기 게임을 통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진 후, 립밤과 룸 스프레이 오일의 다양한 효능과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일들을 직접 계량하여 각종 재료를 섞고 정성을 담아 립밤과 스프레이를 완성하였습니다.

만드는 동안 참여자, 보호자가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고 함께 공감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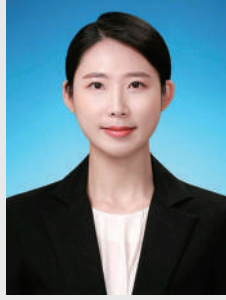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입니다.

10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8W) 문예원 간호사



재활치료2팀 정영주 작업치료사



조직문화성장실 HR팀 박인영 팀장



조직문화성장실 HR팀 김성희 파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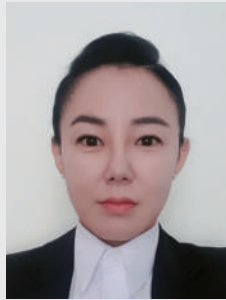
재활간호팀(7W) 배진경 간호사



재활간호팀(5W) 채은서 간호사



재활간호팀(5W) 황정혜 간호사



재활간호팀(8W) 박성혜 간호사



재활간호팀(7W) 김원준 간호사

꽃

- 김춘수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기부자분들의 나눔의 마음 Donor Wall 제막식 및 명패 등재식 (10.28)

3층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면에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기부자분들의 기여를 기념하기 위해 Donor Wall을 제작하였습니다.

Donor Wall에는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의 회원 중 아너스클럽, 동행클럽, 행복클럽, 나눔클럽 기준에 해당되는 회원님들의 기여를 기념하기 위해 나무명패가 등재되며, 이름 기념하고자 작은 제막식 및 명패 등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부자분들의 이름이 벽에 새겨짐으로써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이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미용 서비스 (10.15 / 10.22 / 10.25)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자원봉사자께서 참여자를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5명이 신청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나행밥상’은 매일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푸팟퐁커리

“그 카레요. 약간 허여멀건 한데, 걸쭉하고, 계란도 들어 있고, 게도 있는 거”

사실적이고 섬세한 설명으로 단번에 무슨 메뉴를 말씀하시는지 이해한 그 카레.

푸팟퐁커리

자꾸만 생각난다며 요청하신 그 카레를 이번 달 메뉴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코코넛밀크, 생크림, 피쉬소스, 계란, 크래미, 베이비크랩 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레와는 재료부터 전혀 달라서 익숙한 듯 낯선 이 음식을, 기가 막힌 비율을 찾아내고, 한국적인 재해석을 통하여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그 맛으로 완성하여 밥상 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익숙함과 낯설음을 간직한, 자꾸만 생각나는 기분 좋은 그 맛으로, 잠시나마 치료의 고됨을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영양팀은 이색적인 카레로 우리의 밥상이 좀 더 풍부해 지도록, 동남아시아의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푸팟퐁커리를 필두로 다양한 세계의 카레를 밥상 위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카레로 그리는 세계 맛 지도를 기대해 주세요~



영양팀장의 말, 말, 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10.08)

“언덕은 내려다봐도, 사람은 내려다보면 안된다”

출근길,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정제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의 뉴스를 보며,
어른들이 해 주시던 이 말을 생각하게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위아래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이 건물에 들어선 순간,
이곳에서는 위아래가 아닌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음에 안도감을 느끼며,
이러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생각이 많아서 손이 떨립니다.
당 떨어졌나봐요... ㅎㅎ

떨리는 손이지만,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 봅니다.
오늘 아침의 생각들을 담아,
수평적 위치에서 바라볼 때 좀 더 선명하게 보시라고
눈에 좋은 재료(블루베리, 당근, 견과류, 계란)들을 듬뿍 추가하여
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음식들로 몸과 마음의 눈이 선명하게 맑아지기를 바라며,
맑은 눈으로 편견 없이, 특권 의식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봐주는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잔반을 남기지 않으시면,
달콤 짭조름한 간식이 제공됩니다.



같은 데이터, 다른 전략 '데이터 마케팅'

해석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 해석이 바뀌면 전략이 바뀐다.

글쓰기를 위해 세바시 대학에 입학했다. 강원국 작가의 글쓰기 전공 패키지를 수강했다.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에 호기심이 가득하다. 무엇을 시청해야 하나 즐거운 고민이다. 한 달 내내 고민이다.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려는 순간이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다. 졸업은 해야 하기에 더는 미뤄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나의 강의실로 들어갔다. 전체보기를 클릭한다. 라이브 클래스 강의실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한다. 글쓰기 위해 들어왔는데 마케팅 강의다. 마케팅? 데이터? 근데 익숙한 단어다. '아~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책이 병원마케팅 관련 내용이었지?' 그렇게 설렘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다.

그를 처음 만났다. 작은 액정 속에 그는 짙은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 편안한 면타를 입고 있었다. 예의 바른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 뒤 강의를 진행한다.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이진형 대표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인 시장의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살면서 마셔본 적이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와인과는 거리가 멀어서 집중이 안 될까 걱정했다. 소주파의 쓸데없는 기우였다.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 검색 트렌드, 키워드, 시장 동향, 가격대 시장, 상품명, 판매처, 연령 등을 이용해 와인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강의를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와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누구보다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신기했다. 데이터는 전문가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편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워드 코로나 시대 여행관련 데이터, 카테고리 검색어와 서브 검색어의 차이점, 샐러드 소비형태 변화 추이, 국민은행 콘텐츠, 치킨과 자동차 시장 비교 분석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데이터 활용법을 알려주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으로 느껴졌다.

나의 직장은 병원이다. 한 때 블로그 운영에 심취했다.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지만 그때 매일 순위를 체크하고 고객유입 키워드를 관찰했다. 상위 키워드를 이용해 다시 제목을 정하고 내용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켰다. 관심과 반복적인 행동에 블로그 관련 그래프는 거침없이 우상향했다. 하지만 바쁜 업무 탓에 느슨하게 운영하게 되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다. 이

강의를 만나고 나서 다시금 블로그를 돌아보게 되었다.

같은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데이터 해석하는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 해석이 바뀌면 전략이 바뀐다고 이진형 대표는 얘기한다. 마케팅은 데이터가 달라서 전략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이 달라서 전략이 바뀐다. 99%의 기업은 직원들을 교육시킨다. 뛰어난 1%의 기업은 데이터 해석에 뛰어난 전문가를 고용한다. 그리고 전문가는 딱 3가지를 제공한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숫자'를 알려준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의사결정'해 제시해준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준다. 는 것이 이번 강의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했다.

강의를 듣고 네이버 데이터랩에 접속했다.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분야별로 있었다. 아쉽게도 내가 필요한 병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엔 좀 부족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소셜 데이터와 키워드 광고 센터를 통해 수집할 것이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내 경험에 따라 달라지겠지. 내 경험에 직원들의 경험을 더하면 조금 더 풍부한 활용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이 즐거운 고민이 근심으로 바뀌지 않아야 할 텐데.

내 이야기가 가능하려면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풍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결할 때 얻어지는 메타언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부다. 내가 축적한 데이터를 꼭 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데이터를 추적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들에 관한 메타언어를 익히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일차적 목적은 달성된 거다. 이를 나는 '커닝 페이퍼 효과'라고 부른다. _김정운《에디톨로지, 창조는 편집이다》(21세기북스)

이번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니 문득 글쓰기와 마케팅의 유사점이 생각난다. 바로 데이터가 풍부해야 한다.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려면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풍부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결할 때 얻어지는 메타언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니 사색과 여행을 통한 직접체험과, 책과 영화와 같은 다양한 간접체험을 많이 해야 한다. 부지런한 글쓰기는 더할 나위 없다.

당장 오늘부터,
데이터와 데이터?
글쓰기는 글썬요!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